

국제미술장터 '아트광주15' 폐막

미술품을 사고 파는 '아트광주15'(9월 3일~6일)는 관람객 유치와 작품 판매 면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열렸던 '아트광주 15'에는 4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렸고, 주최 측인 광주미술협회 추산 30여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관람객은 6회 행사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판매액도 가장 많았던 2010년(42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후 행사에서는 10여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었다. 이는 지역 작가들이 직접 자신의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과 소통했고, 중저가 작품을 대거 전시하며 컬렉터를 유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흥행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유명 갤러리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잔치'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갤러리는 작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했고, 국내외 유명 화랑이 오지 않아 '늘상 보던 그림만 보이는' 행사에 머물렀다는 혹평도 나왔다. 무엇보다 역동하는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해외 갤러리가 전체 참여부스 179개 중 14개에 그쳐 '국제'라는 타이틀이 무색했다는 평가다.

화랑이 작가를 선별해 참여하던 여타의 아트페어 방식이 아니라, 지역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팔다 보니 참여 화랑들의 불만도 컸다. 지역 작가들의 개인 부스에만 지역 컬렉터가 몰려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진 타지역 갤러리들의 내년 아트페어 참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작가 부스’ 흥행... ‘지역 잔치’ 극복 과제



지난 6일 폐막한 '아트광주15'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올 아트페어는 4만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고 입장객 수를 기록했다.

/김진수기자 jeans@

◇100여명 전시회 열고 작품 판매=이번 아트페어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부스를 도입해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판매했다는 점이다. 지역작가들에게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장의 절반가량을 개인 부스로 할애했다. 100여명의 작가들이 일종의 '개인전시회'를 열어 자신의 작품을 판매했다.

개인 부스에 참여한 한 작가는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출품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지만 관람객에게 직접 작품 설명을 할 수 있는 등 좋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입장권 할인혜택을 받은 학생들의 발길이 많이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미술대학 학생들은 무료 입장하는 등 학생들의 입장료를 지난해 보다 낮췄다. 곳곳에서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학생들과 유튜브를 끌고 온 가족 단위 입장객이 많아 행사장에 활기를 더했다.

박구환 전시감독은 "이번 아트페어는 개인부스를 통해 지역작가들을 대거 초청한 점이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며 "사람들이 많아 작품이 팔릴 가능성이 크고 작품이 많이 팔려라 광주아트페어가 국제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아트페어의 입장객 수는 약 4만명으로 지난해 3만명보다 1만명이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장객 4만명 몰려 전시장 활기

‘객이 된’ 갤러리는 박탈감 표출

해외 참여·대작 적어 국제행사 무색

아트페어 전담 조직 필요성 대두

◇국제 행사로서는 아직 '미흡'=광주미술협회는 이번 아트페어의 매출액이 30여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작품 판매 계약이 성사되는 아트페어의 특성상 정확한 판매액 집계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저가 위주의 작품이 대거 판매했다는 게 미흡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갤러리와 작가들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사람들이 많이 찾긴 했지만 몇몇 갤러리와 개인 부스에만 구매자들이 몰렸다는 것이다. 또 타지역 출신 작가나 갤러리들은 작품을 한 점도 못 팔아 오히려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갤러리 관계자는 "행사가 광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광주시립미술관의 작품구입도 광주 화랑과 작가에게 집중돼 타지역 갤러리들은 거의 팔지 못했다"면서 "아트페어는 화랑이 우선 작가를 선별해야 하는데 절반 가량 작가 부스가 설치돼 다소 질적으

로 떨어진 작품도 많아 컬렉터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출신 작가의 작품 44점을 구매했다. 지난해에는 같은 금액으로 54점을 구입했었다.

개인부스에 참가한 서울의 한 작가는 "광주 미술계는 지역색이 너무 강해 광주아트페어는 지역출신 작가들의 작품만 잘 팔린다"며 "작품은 한점도 못 판 채 들리지만 서다 온 기분이다"고 토로했다.

국내외 유명 갤러리의 참여가 없었던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구매력이 있는 컬렉터를 보유한 유명 갤러리가 오지 않아 '대작'의 출품도 적었고, 덩달아 불거리 없는 행사였다는 것이다.

◇전담 조직 설립 필요성도=이번 아트페어를 통해 전담 조직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동안 광주아트페어는 '광주비엔날레-광주문화재단-한국미협-광주미협'으로 행사 주체가 변경되다 보니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했다.

실제, 이번 아트페어 개막을 일주일 앞둔 지난 8월 말까지도 주최 측이 기업체 후원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후원금을 늦게 전달받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또 지역작가들의 부스와 갤러리들이 함께 참여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무생물과 생물의 유기체적 풍경

무등현대미술관, 15~24일 김주연 초대전



‘존재의 가벼움 I’

김주연 작가가 설치한 초록색 싹이 뒤덮은 드레스는 기이하지만 싱그럽다. 무생물과 생물의 조합을 통해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무등현대미술관은 생태미술로 유명한 김 작가를 초청해 오는 15~24일 '유기체적 풍경III'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김씨가 광주에서 5년만에 갖는 전시로, 불교 철학에서 '모든 존재의 다른 성장, 다른 방식의 성숙'이라는 개념을 일컫는 '이숙(異熟)'을 바탕으로 빨간 드레스에 싹을 심어 싹을 틔어내는 설치작품과 일상의 오브제에 식물성을 이식한 '존재의 가벼움' 사진 시리즈를 선보인다.

또 지난 2011년 남극 김조지섬에서 촬영한 변화하는 빙벽을 기록한 사진, 비디오 작품 'Metamorphosis of Every Life', 무등산 인근 자연의 느낌을 단어

로 조합한 팻말 등 약 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씨는 전남대 예술대학과 베를린 국립 예술대학교 순수조형예술대학을 졸업했으며 지난 2012년 광주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223-337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웬기념각에서 재즈·민요 선율

‘순수’ 12일 ‘프렐류드’·소리꾼 전영랑 출연

‘근대문화유적에서 만나는 재즈와 흥겨운 민요.’

광주 남구 양림동의 역사문화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는 '순수'가 오는 12일 오후 7시 기독교대학교 오웬기념각에서 공연을 갖는다.

‘양림의 소리를 듣다’ 세번째 시리즈로 재즈밴드 ‘프렐류드’와 경기 민요 소리꾼 전영랑이 함께한다.

〈사진〉버클리출신의 남성 4인조 밴드 ‘프렐류드’는 리더를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고희안을 비롯해 색소폰 주자 리처드 로(노정진), 베이스리스트 최진배, 드럼 주자 한웅원으로 구성돼 있다.

유학시절부터 한국의 소리와 재즈의 결합을 꿈꿔온 ‘프렐류드’는 전영랑씨와 함께 경기민요와 재즈 즉흥연주가 결합된 10곡을 묶은 국악 프로젝트 앨범 'Fly in-날아든다'를 완성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 오백년’, ‘갈뉘이와 갑순이’, ‘밀알아리랑’ 등 친숙한 민요부터 ‘이 몸이 학이나 되어’, ‘비나리’ 처럼 다소 생소한 민요들까지 다양한 민요를 만날 수 있다. 무료 공연. 문의 062-651-09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soo.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문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KT ● 중일초교 ● 금남로
한화생명 ● 주한대 ● 고려우치당
구.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 북경랑 한의원